

특 집

Special Issue

2005 한국건축문화대상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05



‘건축은 문화’라는 대명제 아래 이 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을 선정하는 2005한국건축문화대상의 영예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국내 준공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한 준공건축물부문에는 총 88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이상림·강희성(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함종관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남양)가 공동 설계하고 현대건설(주)과 화성산업(주)이 공동 시공한 「달성군청사」가 비주거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박 승(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사와 S.O.M이 공동 설계하고, 삼성중공업주식회사와 삼성물산(주)이 공동 시공한 「타워팰리스Ⅲ」가 주거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작품성, 창의성, 친환경적 구현과 공공성 그리고 건축 관계자들의 열의와 시대적 소명감 등을 고려해 심사한 심사위원단은 달성군청사를 “시각적 투명성과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서 고려된 광선 처리가 공간을 유쾌하고 친근하게 만들어 건물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인 작품”이라 평하였으며, 타워팰리스Ⅲ는 “정리되고 세련된 외부와 내부 공간, 명쾌한 동선 처리,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초고층구조기술, 건축음향적 고려 등으로 건물의 건축적 가치뿐만 아니라 상업적 가치도 더욱 높인 작품”이라고 평하였다.

이밖에도 「배재대학교 예술관」과 「대치 동부센트레빌」이 본상을, 「옥계 휴게소」를 포함한 4작품이 우수상을, 「쌈지길」을 비롯한 15개 작품이 특선을 차지하는 등 총 23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또한 ‘재래시장’을 주제로 한 일반 및 신인·학생 대상의 계획건축물부문에서는 총 142작품이 참여한 가운데 「커뮤니케이션-방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계획안을 출품한 김규태, 유소래, 한재희(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동대학원 건축공학과)씨가 금상을 차지했고, 은상 2팀, 동상 3팀, 입선 25팀 등 모두 31개 팀이 입상했다.

또 올해로 두 번째로 시상되는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은 전통고택 보존운동을 통하여 건축문화의 본질을 알리고 건축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수상자로 선정돼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공로상에는 한국건축문화대상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장기창 건설기술혁신기획단 단장과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이 선정됐다.

지난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는 대상 두 작품에 대통령상, 본상 두 작품에 국무총리상, 우수상 4작품에 건설교통부장관상, 특선 15작품에 대한건축사협회장·(주)서울경제신문사장상(공동명의)이 각각 수여됐다.

계획건축물부문의 금상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상과 상금이, 은상과 동상, 입선작은 대한건축사협회장상과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아울러 동상이상 수상자 중 영어 인터뷰 심사를 거쳐 2명을 선발, 아카시아 학생챔버리대회 파견 특권이 주어진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그동안 기성 및 예비 건축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는 물론 우리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대표 건축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편집자 주)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트로피

트로피의 구성은 건축적 조형 요소로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수직의 벽면과 원기둥, 곡선과 직선 등 건축 조형언어의 상징적 만남은 공간을 다양하고 긴장감이 있는 구성물이 되게 한다.

디자인 : 정보원(Chung Bo-won)
서울대 미대, 파리 국립 장식미술학교, 파리 국립 미술학교 제6건축학교 졸업, 아카데미 드 빠리 주최 '1982년 웨네옹 상' 공동 수상, 고레르 몽펠랭(Clermont Ferrand) 미술 축제 '회화상' 수상, 제6회 대한민국 환경 문화상 환경 조형 부문 수상, 서울 88올림픽 성화 도착 기념 조형물, 대한민국 국회 개원 50주년 기념 조형물, 삼성전자 30주년 기념 조형물 등 제작
email. chungbowon@kornet.net

상의 제정 배경 및 목적

제정배경

-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은 문화」라는 대명제 아래 '건축의 대중화'를 추구함으로써 우수한 건축물이 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건축의 정통성과 현대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 이 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아 건축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기본취지로 지난 92년 건설부와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제정함.
- 제3회('94) 행사부터는 지난 1971년부터 대한 건축사협회가 단독 개최해오던 「한국건축전」과 통합을 이뤄 민·관·언론이 공동 시행주체가 되는 건축 분야의 대표적 전시·시상행사로 발전

목적

-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우리 건축물의 인간중시, 환경과의 조화 구현
-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발굴 및 창작의욕 고취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지난 96년 제5회 때부터 본상 이상 수상자중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 대통령상 등 정부포상을 수여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건축상 제도 중 가장 권위 있는 행사로 발돋움함.

역대 주요 수상작(준공건축물부문)

회차	대상	본상	우수상
제1회 (1992년)	한샘시화 공장	삼성종합연구소 창조관 호텔 현대, 분당시범아파트단지 현대아파트, 연남동주택	-
제2회 (1993년)	헌법재판소	국립부여박물관, 이화여대 공간 학동수출당, 부산서대신동주택	-
제3회 (1994년)	민정학원	아주대병원, 예당교회 SBS등촌동 스튜디오, 포이탑빌라	엑스포아파트 전쟁기념관
제4회 (1995년)	포스코센터	경희분당차병원, 쌍용주타증권 사옥 홍천휴게소 필파스 삼성국제경영연구소	수원선경도서관 도월대동아파트 삼성동 현대빌라
제5회 (1996년)	대법원 청사	분당 주공아파트, 태평양파크빌라트 신내지구 9단지 아파트 수원아외음악당, 진로커머스 공장 용문청소년수련원	-
제6회 (1997년)	LG화학 기술연구소	삼성동주택, 분당 집합주거 웨스틴조선호텔 빌라 코오롱타워, 블루힐백화점 국민생명미래연구소	-
제7회 (1998년)	울산현대예술관	고려포리머 사옥, 김옥길기념관 오크밸리 리조트, 새네플러스, 이태원 다가구주택, 백남학술정보관	-
제8회 (1999년)	(해당작 없음)	양산 컨트리클럽하우스 두산타워, 구산타워 국민의료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민대학교 국제교육관 부산 당감지구 주공아파트, 임거당	-
제9회 (2000년)	교원그룹연수원 - 게스트하우스	성동구노인종합복지관 웰컴시티, 동아미디어센터 미제루, 영동군보건소, 서미갤러리 가나안 교회	-
제10회 (2001년)	의재미술관	천주교인보성체수도회 전주성당 용인 삼성생명 노블라운지 대구달성 명곡 주공아파트 은평구립도서관,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 수원시연화장, 코리아디지털센터	-
제11회 (2002년)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부산아시아드 경기대회 선수·기자촌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기흥상갈 금화마을 원당성당, 중부대학교 건원관	-
제12회 (2003년)	시몬느 사옥	분당 C-11-4-12 광명철산지구 주공아파트 춘천두미르 군인아파트 동부금융센터, 매스메세이지 포스코역사관	-
제13회 (2004년)	광주광역시청사, 아이파크 삼성동	KT여의도빌딩, 한성대학교 도서관 현대해상화재보험 광화문사옥 용인신간 새천년 주거단지, 연하당 광장 11차 현대홈타운	-

역대 응모작 및 수상작 수

* ()숫자는 입상자수

부문	년도	1회('92)	2회('93)	3회('94)	4회('95)	5회('96)	6회('97)	
		준공건축물부문	99점(18)	40점(18)	81점(28)	76점(24)	75점(33)	63점(22)
계획건축물부문	신인부문	-	-	15점(10)	16점(9)	236점(45)	304점(36)	
	학생부문	-	-	127점(29)	179점(38)			
부문	년도	7회('98)	8회('99)	9회('00)	10회('01)	11회('02)	12회('03)	13회('04)
준공건축물부문		72점(22)	52점(25)	62점(26)	78점(24)	67점(20)	90점(21)	89점(22)
계획건축물부문		322점(30)	-	26점(13)	123점(33)	128점(25)	263점(28)	252점(28)

준공부분 대상	준공부분 본상	준공부분 우수상
 <p>달성군청사(비주거부문)/ 이상림, 강희성, 황종관</p>	 <p>타워팰리스 III (주거부문)/ 박 승, SOM</p>	 <p>배재대학교 예술관(비주거부문)/ 박인수</p>
 <p>대지 동부센터빌딩(주거부문)/ 김종국</p>	 <p>보현빌딩(비주거부문)/ 김자호</p>	

행사일정

- 작품공모공고 : 5.1~7.18
- 접수 : 7. 18(월)~7. 19(화) 09:00~18:00
장소 : 대도벽돌 전시관
- 심사 : 7. 29(1차 사진첨심사)
8. 11~8. 12 (준공건축물부문 2차 현장심사 - 수도권)
- 8. 17~8. 18 (준공건축물부문 2차 현장심사 - 지방)
- 8. 20 (준공건축물부문 최종심사)
- 시상식 : 10.27 15:00
장소: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
- 수상작전시 : 10.27~11.1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전시실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2003년 6월 1일부터 2005년 6월 17일 사이에 국내에 준공된 주거용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 출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 단, 리모델링 건축물은 증축·개축·대수선에 한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임시 사용 승인 된 건축물은 응모불가.
- 응모자격 : 응모작품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로서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

시상내용

상명	시상내용	설 계 자	시 공 자	건 축 주	비 고
대상 (2점)	비주거 건축물	대통령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대통령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대통령상 건축물부착용 명판	
	주거 건축물	대통령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대통령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대통령상 건축물부착용 명판	
본상 (2점)	비주거 건축물	국무총리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국무총리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축물부착용 명판	
	주거 건축물	국무총리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국무총리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축물부착용 명판	
우수상 (2점)	비주거 건축물	건설교통부장관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건설교통부장관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축물부착용 명판	각 2점
	주거 건축물	건설교통부장관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건설교통부장관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축물부착용 명판	각 2점
특 선(다수)		대한건축사협회장상 (주)서울경제신문사장 상 트로피	대한건축사협회장 (주)서울경제신문사장 상 건축물부착용 명판		

나. 주요 출품규정

- 작품설명서, 건축물사진, 설계도면 등이 수록된 B4 규격의 사진첩 2부
- 건축물대장 1부
- 설계자·시공자·건축주 소개서 1부 / 외국사 참여작품의 경우 관련사실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 1차 사진첨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패널 제출일은 추후 별도 통보

심사

가. 심사방법

- 1차심사(사진첨심사) : 현장심사 대상작 선정
- 2차심사(현장심사) : 현장 대상작 심사
- 최종심사 : 입상작(대상·본상·우수상) 선정

나. 심사위원

- 이법재 / 단국대학교 교수(심사위원장)
- 김광욱 / (주)동양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김상식 /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민선주 / 연세대학교 교수
- 이기범 / (주)도시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이영수 / 홍익대학교 교수
- 정진국 / 한양대학교 교수

수상자 명단(작품명/설계자/시공자/건축주 순)

■ 대상(대통령상)

- 비주거부문
 - 달성군청사 / 이상림(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 현대건설(주), 화성산업(주) / 달성군수
- 주거부문
 - 타워팰리스 III / 박 승(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

준공부분 | 특선



옥계 휴게소(비주거부문)/ 이충기



A House With Three Courts(주거부문)/ 유 건



수입777 (주거부문)/ 이성관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박인수



쌍지길/ 최문규

소) + S.O.M / 삼성중공업주식회사, 삼성물산(주) / 삼성생명보험(주)

■ 본상(국무총리상)

- 비주거부문

• 배재대학교 예술관 / 박인수(주.아이마크 건축사사무소) / 현대건설(주) / 학교법인 배재학당

- 주거부문

• 대치 동부센트레빌 / 김중국(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동부건설주식회사 / 대치주공고층아파트 재건축조합

■ 우수상(건설교통부장관상)

- 비주거부문

• 보현빌딩 / 김자호(주.간삼파트너스종합건축사사무소) / GS건설(주) / 주식회사 보현개발
 • 옥계 휴게소 / 이충기(주.한메건축사사무소) / GS건설(주), (주)대한 / 한국도로공사

- 주거부문

• A House With Three Courts / 유 건(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상) / (주)자드건설 / 김동연
 • 수입777 / 이성관(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 황숙정 / 황숙정

■ 특선(대한건축사협회장·(주)서울경제신문사장 상)

•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 박인수(주.아이마크 건축사사무소) / (주)현대건설 / 학교법인 배재학당
 • 쌤지길 / 최문규(주.가이건축사사무소) / 장학건설(주) / (주)인사사랑

- 국민연금 부산회관 / 박 승, 한중률(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우정건설(주) / 국민연금관리공단
- 삼성미술관 리움 / 박 승(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Mario Botta, Jean Nouvel, Remkoolhass / 삼성물산(주) / 삼성문화재단, (복)삼성생명공익재단
- 한국국제전시장 / 김정철(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이종찬(주.원양건축사사무소), 이상림(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김중국(주.건원종합건축사사무소) / 삼성물산(주), 현대건설(주), (주)대우건설, (주)태영, 대림건설(주) / 한국국제전시장(주)
- SK T-타워 / 김정철(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부대진(주.진아건축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 RAD / SK건설(주) / SK텔레콤(주)
- SK Telecom 대전사옥 / 이의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건축) / SK건설(주) / SK 텔레콤(주)
- W 서울 위커힐 / 이영희(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RAD / SK건설(주) / (주)위커힐
- 모새골 성서연구소 / 최동규(주.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 강산건설(주) / 사단법인 모새골공동체
- 한샘 DBEW 디자인센터 / 김석철(아키반건축도시연구원 건축사사무소) / (주)두성PnC 건설 / (주)한샘
- 남양알로에 에코넷 센터 / 유석연(hna온고당 건축사사무소) / 대양건설(주) / (주)남양
- 임마누엘교회+교육관 / 김승희(주.경영위치건축사사무소) / 제인건설주식회사 / 기독교대한감리회총복원회 청주복지방임마누엘교회
- 구미동 빌라 / 박인수(주.아이마크건축사사무소)

소) / 이연건설(주) / 한평건설(주)

- 자하재 / 김영준(주.건축사사무소 김영준도시건축) / 박찬욱 / 박찬욱
- 헤로헌(慧路軒) / 김효만(이로재김효만건축사사무소) / 심형섭 / 심형섭

심사 총평

올해로 벌써 14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부문에 있어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 제도이며, 한국건축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출품된 작품 수는 비주거 부문 64작품 그리고 주거부문 24작품 등 총 88작품이며, 심사방법은 예년과 같이 비주거와 주거부분으로 이원화하여 시상하되 비주거와 주거부분의 작품수를 고려하여 우선 입선 이상의 작품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을 현장 답사하여 그 중 최종적으로 입상작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사기준은 작품성과 창의성 및 친환경적 구현과 공공성 그리고 건축 관계자들의 열의와 시대적 소명감 등을 고려하여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심사기준과 방법을 정하였다. 그 결과 사진 및 도면 자료 심사(이하 자료심사)를 거쳐 비주거부문 20작품, 주거 부문 9작품 등 총 29개 작품을 현장 심사대상작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주거부문에 있어 출품작이 적은 관계로 숫자적으로 비주거 부문에 비해 심사 대상작이 적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또한 일정상 가능한 범위에서 주거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2개의 작품을 추가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자료심사에 의한 예비심사였기 때문에 선정 대상 작품 모두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기로 하고 지



국민연금 부산회관 / 박 승, 한중률



삼성미술관 리움 / 박 승, Mario Botta, Jean Nouvel, Remkoolhass



한국국제전시장 / 김정철, 이종찬, 이상림, 김중국



SK T-타워 / 김정철, 부대진, RAD



SK Telecom 대전사옥 / 이의구

난 8월 11일·12일, 17일·18일 그리고 8월 20일 등 닷새간에 걸친 현장방문을 하였다. 현장 선정대상작품 모두 매우 우수한 작품들이고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많은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건축사와 시공자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한 건축주들의 높은 열의와 노고에 감탄하였다. 최종 심사에는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방문의 결과를 가지고 그야말로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일부 작품은 자료심사와 현장 방문과의 시간 차이에 의해 특선작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또한 대상을 비롯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이번 건축문화대상은 지난번과는 다르게 수상제도와 수상작품수의 변화가 있었는데, 비주거 및 주거부문의 각 부문에 각각 대상1점씩 2점(대통령상), 본상1점씩(국무총리상) 2점, 우수상 각 2점씩(건설교통부장관상) 4점을 선정하게 되었다. 특선으로는 15점이 선정되었다. 이는 예년과 달리 수여되는 포상의 범위가 확대됨과 동시에 또한 수상의 품격이 격상된 것이다. 선정된 특선 이상의 작품들이 전국 모든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서 답사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으나, 오히려 1차 자료심사에서 탈락한 작품들도 시간의 제약으로 현장 답사를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 측면도 있었음을 심사위원 모두가 인정하였다. 다만 주거부문의 작품들의 출품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수상작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주거부문도 공동주거와 단독주거의 작품이 그 규모나 작품의 질적인 평가에서 격차가 많았던 것으로 논의가 되어 앞으로 공동주거부문과 단독부문의 구분 또는 공동주거부문을 독자적

로 분리하거나 하는 등의 발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대상을 수상한 타워팰리스 III와 달성군청은 다른 작품들보다 건축적인 개념과 창조적 의지가 강렬하였으며, 시공과 건설의 품질도 우수하고 이를 의욕적으로 수용한 건축주의 높은 안목을 심사위원 전원은 이의 없이 동의하고 수긍하였다. 심사위원 모두가 한해의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한다는 자부심과 의무감으로 닷새에 걸친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심사에 동참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느낀다. 앞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이 해가 갈수록 더욱 발전하고 높은 수준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한국건축계의 밝은 미래가 도래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타워팰리스 III** : 90년 말부터 진행되어 온 주거와 초고층건축과의 결합은 우리 주거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초기의 여러 주거복합 아파트들이 다양한 실험을 하였고, 그 중에서도 타워팰리스III는 도심형 고급 주거 복합의 전형을 제시하였다.

금속성 재질의 경쾌한 외피와 요철이 가지는 독창적인 조형성은 거대한 매스가 가지는 무거움을 상쇄하고 기능과 미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단지 배치, 외부공간과 자연적인 요소를 도입한 조경 그리고 내부평면은 유기적인 형태를 추구하였고, 탐상형의 단위주거평면도 판상형 아파트에서 보기 힘든 다이내믹한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주거복합이 태생적으로 가지는 상업시설의 개방성과 주거시설의 폐쇄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 했던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정리되고 세련된 외부와 내부 공간, 명쾌한 동선 처리,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초고층구조기

술, 건축융합 적 고려 등은 건물의 건축적 가치 뿐 만 아니라 상업적 가치도 더욱 높이고 있다. 건축계획 시 타워 팰리스 단지(Ⅰ,Ⅱ,Ⅲ) 전체를 연결하여 주민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못한 점, 아파트 출입구로 연결되는 진입보도의 협소함으로 인한 개방감의 결여 등은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지만 브릿지를 통해 양재천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은 훌륭한 시도로 보인다.

• **달성군청사** : 대구시의 남서 방향에 위치한 달성군은 도시 중심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도시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달성군이 최근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새롭게 대두된 지리적 사회적 조건이며 행정관료 및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달성군청사는 따라서 이러한 입지와 취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적 구체성을 가져야 했다. 실현된 청사는 멀리 혹은 가까이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산자락을 따라 전개되는 선형 건물이다. 말하자면 프로그램은 크게 행정 및 사무 관련 공간과 문화 및 집회 공간으로 구분되지만 하나로 연결된다. 건물의 하부는 금계산 기슭의 경사지가 가지는 지면의 고저 차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며, 반면 건물의 상부는 장대한 규모를 가지면서 주변에 둘러진 산의 형상에 흡수된다. 건물로 인한 자연과의 단절을 철저히 거부하고 오히려 자연과 인간의 교감의 폭을 넓히고자한 의도가 실현된 것이다. 구조와 형태와의 상응성이나 색채의 선택은 다소 어색하지만, 시각적 투명성과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서 고려된 광선 처리는 공간을 유쾌하고 친근하게 만들어 건물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인다.



W 서울 워커히/ 이영희, RAD



모새골 성서연구소/ 최동규



한성 DBEW 디자인센터/ 김석철

•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 남부순환로와 선릉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단지는 타워 형과 판상 형이 결합된 새로운 아파트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을 관통하는 단지 주보행 축을 따라 진입광장, 분수광장 및 수 공간, 중앙광장 그리고 벽천 마당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머무름이 반복되는 외부공간은 다양하고 변화 있는 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지가 남북으로 최고 12m 고저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지의 레벨차를 이용하여 테크닉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 지상에 차량도로를 배제하고, 단지 광장을 관통하는 보행로를 중심으로 7개 동의 타워형을 배치하여 단지 개방 감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마치 공원 속의 아파트처럼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단지계획은 이 단지의 가장 강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항시 문제가 되고 있는 1층을 피로티로 계획하여 주민용 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전세대가 지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함과 동시에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은 기존 아파트 단지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단지 내부에 최대한 자연을 유입시켜 매우 건강한 환경을 창출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보여 진다.

• **배재대학교 예술관** : 국제교류관과 함께 계획 시공된 건축물로 배재대학교의 앞서가는 건축문화에 대한 의욕이 먼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문화 수준과 걸 맞는 작품으로서 일반적인 교육 공간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역동적인 공간 구성이 돋보인다. 상부 층으로 연결되는 자유로운 램프와 넓게 트인 필로티, 필로티 하부 밝은 타일 모자이크 마감의 오브제와 함께, 자유로운 리듬의 입면은 건축과 미술, 공예

학과의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절제와 유연함과 조화를 잘 표출하고 있다. 동시에 열린 내부 공간의 다양함이 창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미래 조형문화의 주역들을 배출해내는 현장으로서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A House With Three Courts** : 서초구 반포동의 전형적인 도심 주거 불력의 모서리에 위치한 이 주택은 작가의 제목처럼 3개의 정원(중정)을 갖는 전통가옥의 평면을 활용한 배치개념을 갖고 있다. 내부공간이 3개의 중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마다 2면의 개구부 설치로 실내공간으로 많은 빛을 유입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오후 직사광선의 차단 및 실내공간과 외부조경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이 주택이 갖고 있는 서향에 면한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려는 의도가 돋보인다. 이러한 서향 빛과 대지 건너편 건물과의 시선 차단을 위하여 의도된 것으로 보이는 경사진 대지의 조경계획은 너무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매우 부유한 환경의 주택이기 때문에 시공성과 내부 인테리어는 매우 우수하며 내부공간과의 교류는 원활하게 하면서 외부로의 노출은 최소화하여 각 실이 면하는 방향은 선택사항이 되도록 하고 있다. 크고 작은 3개의 중정을 통하여 구성되는 공간의 중첩과 풍경의 변화가 매우 돋보이는 작품이다.

• **수입 777** : 설계자 본인의 주택인 이 건물은 너무나 경치가 좋은 북한강변에 면한 주변경관의 수려한 대지조건만으로도 건축적 요소가 충분할 만큼 전형적인 전원의 풍치를 느낄 수 있는 우수한 경관을 가지고 있다. 건축사 본인의 주택이기 때문에 아마도 세밀한 공간까지 손이 간 느낌이

들 정도로 모든 요소 하나 하나가 세심한 배려가 들어 있다. 통상적인 1층의 거실을 탈피하여 사진 작업 및 벽난로가 있는 홈 오피스를 배치하고, 2층에는 부엌과 거실 그리고 3층에 사적공간인 안방과 손님방이 위치한다. 특히 영화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는 작가의 취미공간을 위한 영화 관람용 공간이라든가 또한 유난히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택 주변을 온통 태우고 있는 개집은 이 집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매우 단순한 박스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매스를 돌로 나누고 그 사이공간을 열어 두어 전체 건물을 관통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 곳곳에 조망과 시선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창을 계획하여 공간적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도록 배려된 주택이다. 작가의 개념대로 상, 하, 안, 밖, 전, 후 간의 공간적 소통은 자연과의 소통, 풍경간의 소통, 사람간의 소통을 이루고 있다.

• **보현빌딩** : 한옥 지구와 경복궁, 창덕궁 등, 역사가 축적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 위치한 보현빌딩은 전통과 현대와의 사이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고민, 또 그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여실히 드러낸다. 주변의 경관 문맥에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재료와 색채는 신중하게 고려되었고, 공간 조직 역시 전통 건축에서 관찰되는 중정 형식을 취하여 이중의 공간적 두께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유연한 동선과 함께 공공의 도시 속에서 침묵의 사적 공간으로 이끌기에 충분하다.

• **옥계휴게소** : 한반도에서 산과 바다가 곧바로 만나는 곳에 옥계휴게소는 동해의 유명 해수욕장 중의 하나인 망상해수욕장을 굽어보는 곳에 자리



남양알로에 에코넷 센터/
유석연



임마누엘교회+교육관/
김승희



구미동 빌라/
박인수



자하재/
김영준

잡았다. 천혜의 자연 경관이 펼쳐진 이러한 장소에 인공적 구조물을 건설 하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지형에 따라 다소 꺾여 있지만 수평으로 길게 늘어난 옥계휴게소의 건축 형태는 백(진입 공간), 안(건물 내부), 밖(앞마당)의 연속적 공간 분절을 경험하게 해준다. 여기서 건축은 어디서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적 장치이다.

•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 예술관에 버금가는 역동적이고 조형적인 공간으로 배재대학교를 방문하는 국제교류 학자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 질 작품이다. 시원하게 확장되는 로비에서 거대한 높이와 화려한 색조의 기둥들은 진취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 공간 위를 브리지로 가로지르는 공간 경험과 함께 상부에서 외부로 나가 만나는 옥상 정원, 단차를 통한 옥상정원과 캠퍼스 후면 부와의 직접 연계, 다시 옥상정원으로부터 건물 전면으로 이어지는 외부 직선계단을 통해 파격적으로 공간을 가로지르는 계획이 인상 깊다. 단지 아이야크의 여러 작품들을 통해 시도되는 건축화된 정원이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쌈지길** : 오랜 시간동안 실험적인 작품들에서만 언급되어왔던 입체화된 골목을 실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기 그지없다. 맨하탄의 구겐하임이 칸딘스키와 함께 던져주었던 신선함을 인사동의 쌈지길이 젊은 작가들과 함께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쌈지 길은 단순한 하나의 건물로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전통적 도시 조직을 입체적으로 재해석한 건축공간과 인사동 걷고 싶은 가로 프로젝트와 우리 젊은 미술계를 꾸준히 후원해왔던

(주)쌈지 기획력의 조화로운 결과로 재조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사동 길의 사교석, 쌈지길의 전 벽돌, 경사로에 줄지어있는 쌈지의 작가들, 이러한 많은 작은 조각들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어질 우리 전통문화의 하나의 해를 만나는 것이 즐겁다.

• **국민연금 부산회관** : 동근 원통형의 공간은 도시와 건축이 상호 그 의미를 교환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 공간을 통하여 외부의 모든 것이 내부의 모든 것과 서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대지의 코너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공공의 장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곳을 통하여 내부의 모든 것은 외부에 수렴한다. 각층의 평면은 간결한 결정체인 것 같이 정제되어있고, 그 정제된 공간들은 극히 기능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기능적이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영성찬 구성을 하고 있는 다른 건축물에 대하여 철저한 프로 정신이 통하는 작품으로 보여진다.

• **삼성미술관 리움** : 한남동 종턱에 자리 잡고 있는 리움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술관 관람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3사람의 유명 외국건축가와 삼우설계가 공동작업으로 완성된 작품이다. 렘 쿨하스의 어린이 교육을 위한 공간과 장 누벨의 현대미술관 그리고 마리오 보타의 고 미술관 건물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면서도 부지에 잘 적응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남동 문화복합단지라고 일컬어질 만큼 약 12년 동안 여러 우여곡절 끝에 현재 위치에 세워진 건물이고, 각 건물 하나 하나가 우수한 건물이란 점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적인 비즈니스 명사로 조성할 계획을 가진 문화복합단지라는 말에 걸맞게 건축주의 기업 메세나 적인

문화 마인드가 세 거장의 건축가들의 힘에 의해 완성하게 되었다는 점이 우리 건축계에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비록 운영에 대한 반감과 엘리트 지향주의적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일반적인 전리품을 나열하는 미술관의 이미지를 다채롭고 매력적인 장소로 변화시켜 공간의 다원적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하는 점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국제전시장(KINTEX)** : 동북아 경제 및 산업의 신 개척지로서의 야심찬 국제전시장으로 기능하고자 하는 한국국제전시장은 다섯 개 전시홀이 나열되어 그 전체 길이가 삼백 미터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전시 공간이다. 각종 편의 시설 및 서비스 프로그램은 전시 홀에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효율성을 높인다. 그리고 유리 와 철을 주요 건축 재료로 선택해서 거대한 덩어리 모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 **SK T-타워** : 을지로 입구에 세워진 SK T-타워는 도심의 표정을 재고하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한다.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두께가 얇아지며 살짝 꺾인 건축 형태는 조형적 측면에서 독특성으로 부각되며, 이와 함께 건물 전체를 덮는 유리 외피는 시선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현관을 들어서면 야외 전시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방이 적극적으로 개방되었고, 이동통신 사업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전광판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내부와 외부에 적절히 배치되어 시각적 즐거움을 더한다.

• **SK Telecom 대전사옥** : 현대적인 자재를 사



용하여 전반적으로는 기술적 완벽성과 인간적 친근성을 조화롭게 표현하기 위한 작업의 결과가 바로 이 건축이라고 하겠다. 유리의 매끄러운 표면에서 느껴지는 단아함과 세련성이 있는가하면, 테라스 등에서 목재로 마감한 바닥 등은 인간적인 느낌과 감촉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그동안의 기술의 발전에서의 건축이 가지게 된 정적인 장점과 인간이 항상 추구하여야 하는 인간적 크기와의 배려를 가지는 좋은 건축이라는 의미와 함께, 저층부의 간결한 로비공간 처리들이 뛰어난 작품이다.

• **W 서울 워커히** : 도심에서 벗어난 한강변에 도시적 Facade로 하이테크 한 이미지는 새로운 유형의 근교 호텔로서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한강과 아차산 사이에 자연적 지형과 대지의 고저차를 이해하고, 지하층의 경우 자연채광과 조망을 극대화시키고 어느 위치에서나 자연의 조망을 내부공간으로 관입시키려고 한 노력이 보인다. 아간의 조명은 또 다른 형상의 Facade를 연출하는 창의성이 보이며 개구부의 심플한 Canopy는 명쾌한 인상을 준다. 외관에서는 기존 건물인 웨라톤 워커히 호텔의 건축적 Image와 강한 대비감(contrast)을 갖고 있으나, 좀 독선적인 것 같다. 내부에서는 새로운 개념으로 계단식 로비라운지라든가, 어두운 검은 색조를 쓴 엘리베이터 내부라든가, 남녀공용의 화장실, 새로운 Trend를 시도한 객실의 과감한 원색 대비 등은 상대적 생동감을 경험하게 하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 **모새골 성서연구소** : 양평의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이 연구소는 그 대지의 선정이 중요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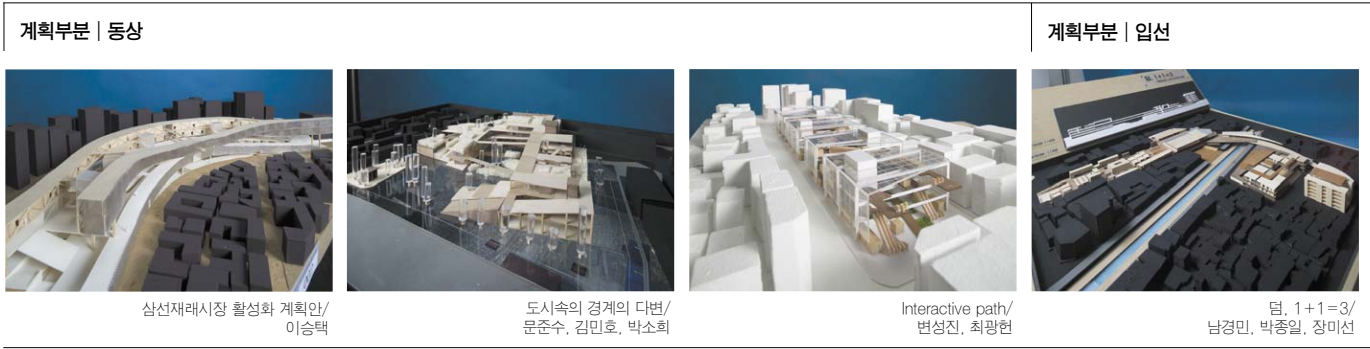
으리라고 상상이 되듯이 적당한 환경에 자리 잡고 있다. 전체가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단아하고 겸손한 건축물로서의 의미를 배가하고 있고, 특히 조그마하지만 인간적 척도에 알맞은 크기의 예배당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식당과 숙소 등에는 적절한 유리창과 공간이 어우러져 있어서 단아한 공간과 적당히 어우러진 정적이 이곳의 장소성과 건축의 조화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건축이라고 보겠다.

• **한샘 DBEW 디자인 센터** : 기존 고옥(古屋)과 창덕궁 돌담을 좌우로 잘 정돈된 배치는 주 진입 공간이 내부공간과 같은 아늑함을 느끼게 한다. 현대적인 디자인센터의 기능과 강요된 역사문화미관 지구의 전통양식의 외형으로 인한 부조화를 비교적 잘 소화한 작품으로 전통건축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설계자와 건축주의 열정이 돋보인다. 이 건물의 상층부분을 점진적으로 후퇴시켜 주변 환경에 순응하게 하고 휴먼스케일에 맞는 친근감과 계단을 오르며 매 층마다 색다른 조망과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비교적 큰 공간이 요구되는 교육 및 연구 전시시설의 외벽을 전부 유리거울로 처리하여 유리면에 투영되는 고옥(古屋)과 돌담과 숲을대문 등을 또 다른 하나의 조형물로 느끼게 하는 설계자의 의도로 보이나 수직 동선과 휴게홀 부분의 완성된 전통양식의 형태와 업무공간 외부의 흰색 Frame으로 된 반사되는 유리면이 서로 이질적인 형상으로 부각되어 투영되는 영상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 같다.

• **남양 알로에 에코넷 센터** : 젊은 건축가의 열정과 의외로 차분하고 밀도 있는 결과물의 조화

또는 대조가 아름답다. 더불어 참신한 열의를 믿고 설계를 맡긴 남양 알로에의 건강한 기업정신이 건축물과 함께 드러나는 작품이다. 벽돌의 차분함과 깔끔한 디테일, 이웃 공원과의 친근한 연계, 단순하면서도 획일적이지 않은 내부공간과 함께 기본 좋은 옥상 정원 및 계단식 소공연장이 모두 인상 깊다. 과한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곳곳에서 적절하게 대처한 디자인의 절제됨을 눈여겨보고자 한다.

• **임마누엘교회 + 교육관** :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신개발 지역의 무질서한 환경에서 조용히 교회라는 성스러운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 매우 절제된 매스와 질감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임마누엘 교회는 대지 조건 상 도로에 의해 양분된 2개의 매스 즉, 교회와 교육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재료인 벽돌이라는 재질감에 의해 친근감을 주면서도 차분히 대지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는 전면의 입면구성을 압도하는 상층부에 위치한 대예배실로 가기 위한 계단이 매우 인상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물론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1층을 비웠으며, 구조적인 해결을 위한 일수도 있지만 대 예배 실을 최상층에 배치함으로써 대 공간에 이르기까지의 전이 공간 역할을 하면서도 절제된 입면에 강한 사선을 제공하며 강한 입구성을 드러내는 계단은 교회의 이미지를 강하게 하면서 더욱 성스러움을 상승시키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최상층의 대 예배 실은 구조적으로도 15m 장 스패를 사용하여 무주공간을 형성함으로써 한층 더 열린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저층부의 솔리드 한 벽돌의 매스와는 다른 비록 반투명이지만 샌드 블라스터 유리를 사용하여 내부공간에 충분한 빛을 받아들임



과 동시에 저녁에는 반투명한 대공간이 외부로 빛을 발함으로써 부유하는 매스의 이미지를 갖도록 계획된 점은 교회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구미동 빌라** : 마치 입체 퍼즐을 접하는 듯 한 새로운 주거 디자인의 결정체라고 하겠다. 최근 주택들에서 방과 정원이 평면적인 퍼즐을 형성하는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면, 구미동 빌라는 삼차원 퍼즐 유형을 대표한다. 주차와 주거 유닛, 자연이 서로 구분되어 정렬된 이전의 집합주택의 틀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한 주거 유닛마다 정원과 데크, 주차 공간이 결합되고 그 개개의 단위가 복합적으로 조합된 입체적인 조직이 새롭다. 처음 접근하는 이에게는 쉽게 파악이 안 되는 공간으로 다가오지만 층을 거치면서 겪게 되는 그 공간 구조의 반복성이 흥미로우며, 거주자에게는 개개의 영역이 완벽하게 정립되고 타 세대와 분리되는 특성을 가진다. 기존의 틀을 깨는 주거 유형들이 제시될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디는 작품으로서 의미가 깊다.

• **자하재** : 파주 단지에 있는 이 집은 건축주 2세대가 사는 주거공간인데, 두개의 주거공간이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고민한 것같이 보인다. 자그마한 공간과 공간이 서로 엮거리면서도, 서로의 독립적 성격과 서로의 공통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가는 이 두개의 단위를 아주 절묘하게 엮어지게 하였다. 노출콘크리트가 주는 솔직함과 질감의 소박함으로서 이러한 기능적 연결은 마당과 건축물간의 대화로 승화되었고, 어디 서든지 감지되는 조그마한 조경의 공간은 하나의

공간에 또 하나의 공간이 서로 연이어 있음으로써 주거의 풍부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헤로한(慧路韓)** : 광주에 위치한 이 주거는 건축사와 건축주의 의견이 비교적 잘 조화를 이룬 건축으로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두 덩어리의 구분이 보이고, 이 구분은 대체적으로는 생활의 구분이 된다. 한쪽은 자녀들의 공간이며, 한쪽은 주인내외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개의 공간이 상당한 독립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중간부분에 소나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테라스와 같은 매개요소를 설치 배열함으로써 두개의 영역이 또 한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끔 하였다. 이 건축물의 곳곳에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공간들의 유치는 이 건축물만이 지닌 또 하나의 지적 만족감과 아울러, 공간의 다양함과 즐거움을 제공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다 함께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다.

계획건축물부문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행사일정

- 작품공모공고 : 5. 1~7. 31
- 접수 : • 1차 작품계획(안)접수 : 2005. 8. 1(월)
 - 2차 패널 및 모형접수 : 2005. 8. 31(수)
 - 접수장소 : 대도벽돌 전시관
- 심사 : 8. 3(1차 작품계획(안) 심사)
 - 9. 2(2차 패널 및 모형심사)
- 시상식 : 10. 27 15: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
- 수상작전시 : 10. 27~11.1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전시실

주요 공모요강

- 가. 응모 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
 - 작품주제 : 재래시장
 - 주제설명 :
 - 각 지방 도시들의 지역에 적합한 구체적인 장소를 선정
 - 도시, 건축, 구조, 조경, 실내외 환경디자인 등 제 분야에서 계획

오늘날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아마도 지역사회 전체의 문화와 건축과의 관계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래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건축의 사회적 입장에서 안타까움으로 표출되고 있다. 재래시장은 옛부터 지역 주민의 전



나는 미로화된 기억속에서 느껴본다/
김정현, 김지희



Dream of Restoration/
이재성, 정지현



거리중심의 재래시장 커뮤니티의 재활/
강효정, 정효정



머무름이 만들어내는 순간들/
곽상남, 유병민

통문화와 정서가 담긴 곳으로 영세상인들의 고용 기회 제공과 지역경제 및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서민경제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해 왔으나, 근래에 유통산업의 전면 개방과 소비 취향의 급격한 변화와 홈쇼핑 대형할인점등에 젊은 고객들은 몰리고 있고, 재래시장은 중, 장년층의 오랜 단골들만으로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재래시장은 노후화된 시설과 대중교통 및 자가용의 접근성, 주차 공간 부족, 총체적 경영의 부재 및 서비스 체계의 한계 등으로 고객의 눈길에서 점차 멀어져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최근 재래시장이 지역 서민경제의 안정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자원과 연구가 지방자치 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들이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반영한 소비행태나 기존 상인들의 재입주 장려책과 기존 재래시장의 지역적 특성 분석이 부족한 채,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의 도로 정비 및 아케이드 설치 등의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재래시장의 본질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여건의 특성과 지역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재래시장의 지역적 개발의 방향과 지역간의 상관관계를 심층 분석하지 않은 채 재건축재개발 위주의 정책은 일부 시행자와 지주들의 사업 이익을 대변할 뿐, 기존 영세상인과 노점상들이 쉽게 정착하지 못하여 또 다른 노점을 찾아다니게 만들뿐만 아니라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대형건물로 집합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현대화의 모색은 지역도시의 관점에서 재래시장의 기능과 역할은 구체

적인 분석을 통하여 건물시장뿐만 아니라 노점을 포함한 가로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적인 접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재래시장의 개발의 방향도 그 시장의 입지적 특성, 상권구조, 사회적, 문화적 접근, 기존 상인들의 지속적 영업을 고려한 개선 및 계획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도시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역주민적 공공성의 건설한 토대를 꿈꾸어 본다. 또한 재래시장 현대화활성화는 전통적인 장소성의 고유한 맥락들을 해체하면서, 단지 물리적인 시장공간의 균질한 형태에서 벗어나 도시민들에게 활기찬 만남의 장소 그리고 문화를 제공하는 도시민들의 진정한 여가와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재인식하여 새롭고 다양한 개발 기법과 재해석을 통하여 지역도시의 전통문화와의 상생의 장으로서 재할하기를 젊은 건축인들의 손을 빌어 기대해본다.

- 출품자격 :

-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자격 소지자 제외)
- 대학(교) 및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일반국민

나. 주요 출품규정

- 1차 : 작품계획안 A2(42.0cm×59.4cm) 1부
 - 아이디어 위주의 전개과정, 설계개념 등을 표현(패널 축소판이 아님.), 작품설명서 1부 (A4 2매 이내)
 - ※ 작품계획안, 작품설명서, 원서의 제목이 동일해야 함.
- 2차
 - 패널(가로90cm× 세로120cm) 1매 및 모형(가로×세로 75cm×90cm 또는 90cm×75

cm, 높이 75cm 이내)

- 1차 작품계획안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패널 및 모형을 제출함.
- 응모작품의 출품자는 3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1작품 참여로 제한함.

심사

가. 심사방법

- 패널 및 모형 심사

나. 심사위원

- 손기찬 / 건축사사무소 동이 (심사위원장)
- 유원재 / 건축사사무소 다건축
- 이관직 / 비온드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 박호건 / (주)건축사사무소 당건축
- 신호근 / 넥스트 건축사사무소
- 이종훈 / (주)천일건축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상내용

- 금상(1점) : 상금 300만원 및 건설교통부장관상
- 은상(2점) : 각 상금 200만원 및 대한건축사협회장상
- 동상(3점) : 각 상금 100만원 및 대한건축사협회장상
- 입선(다수) : 각 상금 30만원 및 대한건축사협회장상
- ※ 동상 이상 수상자중 대학재학생에 한하여 인터뷰심사를 거쳐 2인을 선발, ARCASIA(아시아건축사협의회) 학생잼버리대회 파견



길의 재해석을 통한 재래시장 계획안/ 김병진, 김세형, 장창현



평화시장 주변활성화 방안/ 조성태, 최선영, 정미애



상생하는 상크/ 방기진, 전민석, 강승이



Urban in the Lines/ 신동환, 임규섭, 김영수

수상자 명단

■ 금상

- 커뮤니케이션-방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계획안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김규태, 유소래 · 동대학원 건축공학과 한재희

■ 은 상

- One Market & Four Trees /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이선재, 박은미, 변나향
- Event Scape-지역성 해석을 통한 유기적인 event scape로서의 재래시장 재생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김경현, 노대만, 문진아

■ 동 상

- 삼선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안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디자인 연구실 이승택
- 도시속의 경계의 다변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문준수, 김민호, 박소희
- 부산서면시장-도시흐름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재래시장의 제안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변성진, 최광현

■ 입 선

- 덤, 1+1=3 / 동국대학교 건축학과 남경민, 박종일, 장미선
- 나는 미로화된 기억속에서 느껴본다 /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김정현, 충청대학 건축전공 김지희
- 보문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안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재성, 정지현
- 거리중심의 재래시장 커뮤니티의 재할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강효정, 정효정

- 머무름이 만들어내는 순간들 /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곽상남, 유병민
- 길의 재해석을 통한 재래시장 계획안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김병진, 김세형, 장창현
- 평화시장 주변활성화 방안 /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조성태, 최선영, 정미애
- 상생하는 상극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 전공 방기진, 동대학 건축학부 전민석, 강승이
- Urban in the lines /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신동한, 임규섭, 김영수
- 자생을 통한 연계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박명재, 이정우, 김영기
- 장소와 장소상실 /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김현수, 박순재
- Incompletion & butterfly effect / 목원대학교 졸업 정현덕, 조덕상, 동대학 건축학과 변희영
- Rhizome-가로로 상호작용을 이용한 지역주민의 다중참여유도 /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건축설계전공 성재원
- 새터(신촌) 재래시장 재구성 계획안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건축환경디자인연구실 류금영
- 시장-생성과 소멸 / 인하대학교 건축대학원 장재경, 원태용, 동대학 건축부 강대명
- 자생 /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조종민, 김정환, 이종철
- 문화의 연결고리 /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윤순영
- 몽유시장도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김남현, 강원형
- 새로운 도시의 레이어 만들기 /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한정환, 이승철
- 사라진 흔적의 재구성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전현경, 가문건축 김 권

- 흐름과 머무름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서현나, 황신형, 황헌혜
- 입체가로를 통한 공간의 소통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김태연, 전은수
- 마장동 우시장활성화 방안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정애, 김해영
- 동문재래시장의 재구성 / 제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김형건
- 자생(自生) / 인하대학교 건설공학부 송유림, 전경하, 최희경

심사평

손기찬 / 건축사사무소 동이, 심사위원장

올해의 계획건축물부문 작품주제로 제시된 「재래시장」이라는 테마는 작금의 재래시장이 처한 현실만큼이나 난제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요구되는 테마인 만큼, 예년보다 작품수가 대폭 줄어들긴 했지만 그나마 걸러진 142작품이 접수되어 1차 심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응모자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물론 「재래시장」이라는 구체적 주제에 대한 해석을 놓고 심사에 들어가 2차 심사대상을 선정할 때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완성도보다는 2차 심사 때까지 발전 가능성을 헤아려 그 중 41작품을 선정하였다. 「재래시장」이라는 주제를 건축디자인 대상으로서만 보는 인식이 눈을 흐리게 하였고, 여전히 개념에서 경중 뛰어넘어 시각으로 이어지는 비약이나 아이디어 이전에 행동으로 나서는 소모적인 무모한 도전은 주제선정의 고심만큼이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였다. 그래서 1차 심사에서의 아쉬운 점과



자생을 통한 연계/
박명재, 김영기, 이정우



장소와 장소상실/
김현수, 박순재



Incompletion & Butterfly Effect/
정현덕, 조덕상, 변희영



Rhizome-가로로 상호작용을 이용한 지역주민의 다중참여유도/
성재원

함께 1차 심사에서 제시된 패널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2차 심사에서는 자유롭게 주제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심사위원들의 바람을 1차심사후 기로서 드러내었다. 2차 심사에 제출된 40작품(작품 미 제출)은 심사위원들의 바람만큼이나 대부분 1차 제출패널과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시킨 작품들이어서 입선작품을 쉽게 선정할 수 없는 행복한 어려움에 처했다. 그에 반해, 「재래시장」이라는 주제를 벗어나거나 주제의 해법보다 건축 조형적 제안에 탐닉한 몇몇 작품은 오히려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불리하게 작용하였기에 쉽게 배제할 수 있었다. 먼저 각 심사위원마다 탈락 작품을 10작품씩 선정하였다. 과반수이상의 탈락 표를 얻은 작품은 우선 탈락시키고 동수인 탈락대상에서는 재투표를 통해 여러 행사 시행여건을 감안, 아쉽지만 최종 30작품을 입선 및 수상대상작품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심사 전에 마감시간을 어긴 작품에 대한 심사 방법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 간의 많은 논란 끝에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하되 감점을 주도록 하고, 입선까지만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였다. 다음단계의 심사에서 우선 수상대상 8작품을 투표표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8작품 중에서 동상 3작품을 다시 선정하였지만 수상대상의 상향과 함께 특별히 작품의 우열을 가릴 만큼 월등한 점을 발견하기에는 점점 어려움에 부딪힌다는 의견에 심사위원들이 공감하였다. 금상 없이 결정하자는 견해도 제기되었으나 결국 두 번의 재투표를 통해 우열의 의미보다 수상대상 선정으로서의 의미로 금상과 은상을 선정하게 된 아쉬움이 남는 심사였다. 물론 「재래시장」의 해법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매개로 형성되거나 재구성의 지리적 배열이 아닌 그 이상의 사회적 함의를 갖고 있기에 공

모의 시간이나 주어진 표현 여건 속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견되었고, 해서 주어진 해답은 없지만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삶과 유기적 연관성을 갖고, 상호 작용 속에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서로 공유되는 장으로서의 리얼리티에 대한 실험정신의 기대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연히, 제한된 주제의 난제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응모자와 입상자 모두의 노고와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

유원재 / 건축사사무소 다건축

우리의 향수 어린 재래시장들이 급변하는 사회의 물결 속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시들어가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건축적 배려만으로 생기를 되찾게 바뀌는 건 어렵고 없는 복합적 이 시대의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응모작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은 당장의 해결책이 아니고 좀 더 진지하게 요즘 우리 시장의 문제를 여러 각도로 펼쳐서 보여주었다는 데 많은 의미가 있었다. 학생다운 진지한 접근방법으로 시장의 문제점들을 들여다보았으나 주변 지역과의 연관성을 살피는 단면 검토에 좀 소홀한 점이 있었다. 특히 건축물들이 어떻게 도로와 만나야 하는가를 좀 더 즉물적 안목으로 검토해야겠다. 다시 말해 하천의 흐름에 따라 땅이 침식되고 퇴적되는 현상처럼 도로에서 사람들의 흐름도 같다고 본다. 또 이 도로(혈관)를 따라 이용자가 흐를 것이고, 건축물의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건강하고 지속성 있는 도시가 이루어지겠다. 작품들을 항상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해야한다. 작자의 정보를 정확히 담아내고 한 권의 소설 같이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단백하게 들려줘야 좋는데, 많은 응모작들은 애매모호한 흥내를 내고만 있는 것이다. 현란한 수식어를 줄이고 간명하고

투명하게, 무대분장을 지워낸 건강한 도면과 모형으로 학생다운 참신함을 풍기길 기대한다.

이관직 / 비온드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비교적 어려운 주제였다. 재래시장이라는 주제는 각 지역과 도시에 있어서 지역 활성화, 지역 주민 경제적 상권의 보호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형화, 현대화되는 자본주의적 경향에 그 생존 전략은 쉽지가 않다. 이번 공모전은 건축적인 접근에 포함하여 지역개발에 있어서 재래시장의 보존 또는 유지라는 한 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바란 것이다. 심사의 방향은 재래시장의 본래의 기능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다는 주제 의식에 집중했다. 지나치게 형태적으로 제안된 계획안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선택했다. 1차 심사 때는 주제의식이 선명한 계획안(분석적인 작업을 통하여 재래시장의 특성을 찾아내려는 작업)과 건축적인 제안으로서의 가능성 있는 계획안을 모두 고려한 경우에 가깝다. 2차 계획안 제출에서 발전과 구체화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계획안 대부분은 그러한 기대에 대하여 충분히 진전되었다. 다만, 입선작을 추리고 난 후 6개의 수상대상 작품 중에 금상을 가리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이것은 주제의 어려움과 관련된 문제였다. 건축적인 접근으로서, 주제의식을 가지고 현실적 구체적인 계획안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금상으로 선정된 방산시장을 재계획한 작품은 다른 작품에 비해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에 대하여 비교적 충실한 접근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쉽게 입상권으로 논의된 작품 중에 모델 규격을 지키지 않아서 입선에 머문 경우와 접수



센터(신촌) 재래시장 재구성 계획안/ 류규영



시장-생성과 소멸/ 장재경, 원태용, 강대명



자생/ 조종민, 김정환, 이종철



문화의 연결고리/ 윤순영

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서 입선 수준으로 제한된 경우가 있었다. 차후이라도 공모전 참가자는 규격과 시간의 문제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정리된 것이다.

건축문화대상은 가장 공신력인 있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가의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이다. 그럼에도 참가 가능한 많은 학생, 신인 건축가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공개적 진행과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건교부와 함께 특정 신문사와 함께 주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는 홍보를 더욱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건축문화대상 혹은 건축사협회의 위상에 걸맞는 신인작가를 발굴하기위한 공모전이 되기 위해서는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준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신인 건축상이나 건축비평공모전 등을 협회 단독으로 개최하는 등, 기존의 신문사와 건교부의 압력에서 벗어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많은 발전이 있어왔지만 비용과 노력의 효율과 건축계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와 수준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되어야 한다. 그 원칙은 공개주의를 바탕으로 공정성, 독립성이 되어야 한다.

박호건 / (주)건축사사무소 당건축

1차 심사발표 이후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획안들이 높은 완성도를 보여 많은 노력과 정성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심사에서는 계획대상 부지도 각각 다르며, 그에 따라 접근방법이 각각 다를 수 있는 계획안들이었기 때문에 통일된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었고, 각각의 접근방법에 따라

나름대로 최선의 계획안을 도출한 작품들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였다. 입상 작품들이 창의성이나 분위기 연출, 완성도 면에서 타 작품에 비해 비교우위를 보였지만 그 작품들도 각각 형태나 스케일상 주변과의 관계가 소홀히 다루어졌다거나, 단순함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일 정도로 복잡하게 조작을 했다거나, 단위공간들에만 신경을 쓰고 전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미흡했다는 등의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입상작과 입선작의 차이도 상대적일 뿐 어떤 작품의 경우 우수했지만 비슷한 접근방법의 다른 작품과의 비교에 의해 아깝게 입선에 머문 경우도 있다.

1차 심사 후기에서 2차 제출 시에는 '시장기능의 분석보다는 건축적인 결과물(계획안)을 중심으로 구성된 패널'이 좋으리라고 밝히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안 뿐 아니라 계획안으로서 창의성이 돋보이는 안을 기대'한다고 하였는데, 이중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계획안들에서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진행된 사업들이 왜 그렇게 시행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너무 이상에만 치우치지 말고 실제 구현을 위해 기존 상인들을 만족스럽게 다시 수용할 수 있는지, 사업성이 있을 것인지, 토지이용밀도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신호근 / 넥스트 건축사사무소

금상 수상작인「Communication-방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계획안」은 방산시장 일대를 재개발한 계획으로 단순하게 건축적 접근보다 시장의 실제적인 물류운송과 소매자, 작업자간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계획하고 모노레일을 각 블록마다 설치하여 물품공급동선을 고려한 점이

돋보였다. 아쉬운 점은 큰 매스의 처리가 다소 미숙한 점이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은상 수상작인 「Event Scape-지역성 해석을 통한 유기적인 event scape로서의 재래시장 재생」은 국제지하시장과 연계한 선공 공간의 OPEN SPACE를 통해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기존 재래시장의 단절된 시장 통로를 VOID의 위계와 상점의 재배열을 통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시도한 점이 신선하게 보인다. 또 다른 은상수상작 「One Market & Four Trees」는 기존재래시장의 무질서하고 답답한 공간을 자연의 생태계의 개념을 적용하여 다양한 개방공간의 디자인하였으며, 조형디자인 역시 리드미컬하고 세련된 점이 우수하나 그 기능의 설명이 부족한 점이 다소 아쉽다.

동상수상작인 「삼산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안」은 대지의 장소성과 잘 부합되게 선형적 매스를 철골구조로 논리적으로 프로세스를 전개하여 새로운 시장 모형을 제시해 주었다. 다소 보완해야 할 점은 평면계획이 동선을 고려하였으면 좀 더 좋은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 같은 동상수상작 「부산서면시장-도시흐름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재래시장의 제안」은 기존 재래시장의 무질서한 배치를 교차를 통한 보다 매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물의 피막은 내부와 분리하여 내부의 가변성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같은 동상수상작 「도시 속의 경계의 다변」은 재래시장을 소매상의 규모별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새로운 시장의 분위기를 제시하였고, 옥외공간 활용도 좀 더 적극적인 대안으로 옥상공원화를 함으로써 도심의 소통적 역할을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

최종 심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아쉬운 점은 조형적 디자인과 표현력은 1차 심사에 비해 발전하



동유시장도/
김남현, 강원형



새로운 도시의 레이어 만들기/
한정환, 이승철



사라진 흔적의 재구성/
전현경, 김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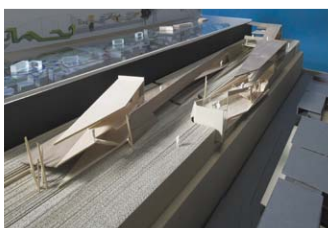
흐름과 머무름/
서현나, 황신형, 황현혜

였으나 가장 기본적 도면 표현방법이나 실제적 서비스차량 및 주차동선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사를 통해서 느낀 점은 금상과 은상, 동상과의 작품성의 차이도 심하지 않아 보여 차후 가능하면 입상 작품들은 동일하게 우수상으로 통일하였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 바람이다.

이종훈 / (주)천일건축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2차 심사장에 전시된 40개의 작품은 과장되고 표현에 치중한 패널은 사라지고 기본적인 표현에 충실하여 1차에서 제출된 계획내용을 진솔한 태도로 재래시장의 바람직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패널에 담겨있었다. 따라서 1차 심사후기에서 언급한 2차에서 계획안의 발전방향 및 고려해야할 점이 반영되어 있어 심사위원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9개의 작품을 우선 탈락시키고 통과된 31개의 입상작품 중에서 본상 6개 작품은 심사위원이 많이 추천한 작품 순으로 선정되었다. 본상작품부터는 공개토론 후 투표에 의해 본상의 순서가 정해졌다. 공정한 경쟁과 심사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31개 입선작품 중 작품제출 마감시간을 넘겨 제출하여 본상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의 패널과 모형사이를 누비면서 포장 속에 감추어진 허와 실을 구별하고, 우수한 작품 의도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작품의 수준이 비슷하여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본상에 오르지 못한 작품을 다시 한 번 돌아볼 때 안타까웠다. 금상의 명예를 획득한 「Communication-방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계획안의 경우 처음에는 본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금상까지 오르게 된

것을 보면 작품의 우열을 가려내기 힘들었고, 그만큼 심사위원들의 전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뛰어난 작품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작품을 선정하는데 있어 재래시장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충실히 담고 참신하게 접근하였느냐가 가장 우선되는 작품선정기준이었다고 생각한다. 디자인은 우수하였지만 재래시장의 장소적 공간적 특징이 부족하고 아이덴티티가 떨어지는 인들은 본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그와 같은 선정기준 때문이었다.
 제출 작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수평축이 강조된 시장을 계획부지로 정한 많은 인들은 그 축이 주는 장점을 살려 우수한 디자인을 하였다. 그러나 유사 인들이 많아 독창성이 떨어져 보였는데, 작품 「Rhizome-가로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지역주민의 다중참여유도」 등도 그 중 하나였다. 많은 녹지공간을 도입하여 도심공원으로써의 시장의 역할 제안은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지만 도입의 어색함, 현실성 부족 등으로 대부분 본상에 오르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 중 돋보였던 안이 「도시속의 경계의 다변,이었을 것이다. 작품 중에는 도시흐름에 대응하는 길(path)으로써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자 하는 작품이 많았는데 그 해석 및 표현이 미흡하여 제외되었다. 작품「Interactive path」는 길의 중첩으로 형성되는 공간의 환경조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시장 진출입공간 처리에 무리가 있어 보였지만 해석프로그램이 충실하여 좋은 평가를 얻었다. 디자인의 개념이 우수한 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 「삼산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안」은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Inter-green Tube의 제안은 디자인 창의성이 돋보였는데, 거기에 구속되어 본래 시장의 기능 및 환경여건 등의 고려가 부족하

여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One Market & Four Trees」의 경우 디자인 및 concept process는 돋보였지만 입체모형 Cubic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및 설명이 부족하여 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재래시장의 이미지 및 기능을 상징화하여 심사위원의 정서를 자극한 안은 「Event Scape-지역성 해석을 통한 유기적인 event scape로서의 재래시장 재생」이었다. 천막구조의 도입은 소박한 역사적 장소적인 기억을 살렸으나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으로써는 과장된 모습으로 비춰졌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드스튜디오 및 체계적인 분석 작업 등을 근거로 물류체계를 세우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건축적인 고려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안이 「Communication-방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계획안」이었다. 그러나 물류체계의 구체적인 해결(주차시설 등)의 표현이 부족하였고, 특히 노천극장 등의 오픈스페이스 디자인은 보완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안은 도시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사회 문화 경제적인 측면 및 역사와 장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를 이루기 위한 하부구조인 물류체계 등이 건축 디자인의 바탕에 고려되어야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작품들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그것은 작품 속에 학생들의 건축에 대한 열의와 겸허한 자세 그리고 이를 격려하고 키우고자 하는 선배와 지도교수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심사위원들은 그들의 작품에 대한 아쉬움을 충분히 달래고 계획작품전의 바람직한 미래의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



입체기어를 통한 공간의 소통/
김태연, 전은수



마장동 도시장활성화 방안계획안/
김정애, 김해영



동문재래시장의 재구성/
김형건



자생(自生)/
송유림, 전경하, 최희경